

##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의 『도자기와 검(陶と劍)』론 - 임진왜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한일 민족의 경계 허물기

김학동

### 1. 머리말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sup>1)</sup>는 장혁주(張赫宙)라는 필명으로 일제 강점 말기와 패전 직후의 일본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1952년 10월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또 다른 필명이다.

해방 이전의 장혁주 문학은 ‘초기의 민족적 집필기(1930-1933)’, ‘과도기적 글쓰기(1934-1938)’, ‘국책 영합적 집필기(1939-1945)’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귀화할 때까지를 ‘휴머니즘적 집필기’로 정의할 수 있다(김학동, 『張赫宙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12-13). 해방 이전의 문학에서는 기생출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생래적 열등의식과 조혼한 연상의 아내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저항과 영합의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김학동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1) 1905-1997, 본명 장은중(張恩重), 일제강점말기 창씨명은 노구치 미노루(野口稔)였으며, 이를 일본 귀화명으로 등록하였다.

www.kci.go.kr

한편 조국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장혁주는 패전 직후의 일본민중의 고통을 그려내어<sup>2)</sup> 새로운 작가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방문하여 많은 르포형식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족의 참상을 일본에 전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장편을 집필<sup>3)</sup>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와중에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노구치 가쿠추의 문학은 『편력의 조서(遍歴の調書)』(1954)와 같은 자전적 작품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한 뒤, 일본사회의 모순과 소외된 민중의 고단한 삶을 그려내어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로서의 사명의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sup>4)</sup> 또한 1960년 무렵에는 많은 양의 추리소설을 잡지에 연재하고 그 일부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는데,<sup>5)</sup> 이는 일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sup>6)</sup>을 부양하기 위한 방편

- 
- 2) 『고아들(孤児たち)』(1946), 『젊은 여자(若い女)』(1948),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と)』(1947) 등이 있다.
  - 3) 르포로는 「조국 조선으로 날아가다-제1보(祖国朝鮮に飛ぶ-第1報)」(『毎日情報』 1951.9), 「고국의 산하(故国の山河)-제2보」(『毎日情報』 1951.11), 「허덕이는 한국(喘ぐ韓国)」(『明窓』 1951.7), 「조국 조선의 고뇌(祖国朝鮮の苦悩)」(『地上』 1952.2), 「계속되는 한국의 불안(韓国の不安はつづく)」(『地上』 1952.11) 등이 있고, 소설은 「부락의 남북전(部落の南北戦)」(1952), 「避難民」(1952), 「異국의 아내(異国の妻)」(1952), 「부산항의 파란 꽃(釜山港の青い花)」(1952), 「부산의 여간첩(釜山の女間諜)」(1952), 「눈(眼)」(1953), 『아-조선(嗚呼朝鮮)』(1952), 『無窮花』(1954) 등이 있다.
  - 4) 이와 같은 작품으로는 『음지의 아이(ひかげの子)』(1956), 『아름다운 저항(美しい抵抗)』(1957), 『검은 지대(黒い地帯)』(1958), 『암병동(ガン病棟)』(1959.5), 『검은 대낮(黒い真昼)』(1959.11), 『호상의 불사조(湖上の不死鳥)』(1962) 등을 들 수 있다.
  - 5) 필자가 조사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총14편의 장·단편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망향의 살인(望郷の殺人)」(『探偵実話』 1960년 4·8월호, 5회 연재)과 「호상의 불사조(湖上の不死鳥)」(『探偵実話』 1961년 4·9월호, 6회 연재)가 있다. 이 중에서 『호상의 불사조』는 1962년 2월 東都書房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 6) 1938년 장혁주의 나이 33세 되던 해에 일본인 동거녀 노구치 게이코(野口桂子)와의 사이에서 장남이 태어난 이후 넷을 더 낳아 아들 다섯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노구치 가쿠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멸망한 고구려 후예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룬 『무사시 진영(武蔵陣屋)』(1961), 한반도의 백제(百濟) 및 가야(伽倻)와 일본의 야마토(大和·倭国) 정권의 친밀한 교류관계를 강조한 『韓과 倭(韓と倭)』(1977),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민족회복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입장을 담아낸 『도자기와 검(陶と劍)』(1980) 같은 작품을 출간하여 한민족과 일본민족의 교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하여 극복하려 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韓과 倭』에서는 고대 야마토의 영토에 백제와 가야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까지는 한반도에 단일민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서 현재의 한일 간의 민족적 대립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김학동, 「張赫宙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405). 그리고 연이어 출간된 『도자기와 검』에서는 임진왜란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을 일종의 동족 간의 내부 갈등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정체되어 있던 양 지역의 교류를 촉진시킨 전쟁이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작금의 한일 민족 간의 대립적인 구조를 부정하는 노구치 가쿠추의 작가적 입장은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논리로서의 ‘한일동족론(日鮮同族論)’<sup>7)</sup>을 연상시키고 있어서, 친일적 글쓰기로 황국신민화

---

그러므로 1960년 무렵에는 이 자녀들이 한창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가의 갑작스런 추리소설의 양산은 이들의 부양책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장혁주는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초혼한 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도 2남 3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 ‘한일동족론’이라는 말은 14세기 중엽의 『弘仁私記』와 『神皇正統記』와 같은 일본의 고문헌에서 확인된다.(홍윤기,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서울: 효형출판, 2000. 7) 이러한 ‘한일동족론’이 본격적으로 주창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학자인 가나자와 쇼사부로

에 협력한 뒤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먼저 작품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작가의 사상적 토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 민족을 바라보는 작가적 인식의 허와 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구치 가쿠추의 한일민족의 교류를 형상화한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필자의 줄고 「張赫宙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 한·일 고대민족의 교류를 형상화한 『韓과 倭(韓と倭)』를 중심으로 -」가 유일할 정도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한일 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 양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도자기와 검』의 집필 배경 및 내용의 고찰을 통하여, 임진왜란에 대한 작가적 인식의 실체를 확인하고, 본서의 집필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한일 민족이데올로기 해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노구치 가쿠추의 한·일 역사에 관련된 저작과 그 특징

노구치 가쿠추(장혁주)가 한·일 역사와 관련된 사건, 특히 임진왜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소재로 삼은 것은 일제 강점 말기인 1939년에 장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출간한 것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이의 속편을 집필한 뒤 『가토 기요마사』와 묶어 『悲壯의 戰野(悲壯의 戰野)』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는데, 이것이 장혁주가 임진왜란을 소재로 계획한 4부작 ‘칠년의 폭풍(七年の嵐)’의 제1부이다. 제2부는 왜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주인공으로 『화전 어느 쪽도 불사하다(和戰何れも辞せず)』(1942)와 『浮沈(浮沈)』

---

(金沢庄三朗)는 『日鮮同祖論』(1929)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沈み』(1943)을 각각 출간하였다. 그런데 제3부에서는 이순신(李舜臣), 제4부는 중국의 강화사신 심유경(沈惟敬)을 주인공으로 집필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김학동, 「張赫宙 문학과 壬辰倭亂」 214).

한편 일제의 패전으로 친일적 집필활동을 문제 삼은 재일조선인 단체의 살해협박에 시달리던 장혁주는 1950년 3월에 영친왕(英親王)<sup>8)</sup>의 반생(半生)을 그린 『비원의 꽃(秘苑の花)』을 출간하여 주목을 받았다. 『비원의 꽃』은 조선의 황태자 영친왕이 당시의 조선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간 뒤, 천황가(天皇家)의 일족인 마사코여왕(方子女王)과 결혼하고 일제의 최고위급 군인이라 할 수 있는 육군 중장으로 패전을 맞을 때까지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장혁주가 이와 같은 영친왕의 반생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은 작가 자신 역시 영친왕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양이었음을 강변하여 스스로의 친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김학동, 「張赫宙의 『비원의 꽃(秘苑の花)』 론」 126).

이후 1952년 10월에 일본으로 귀화한 노구치 가쿠추는 급격한 산업화의 모순과 고달픈 민중의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장편 『무사시 진영(武蔵陣屋)』(1961.10) 및 중편 「신라왕관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1961.11)과 같은 고대 한반도 도래인(渡来人)을 소재로 한 작품을 집필함으로써, 귀화한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무사시 진영』은 8세기 무렵 고구려 후예들이 왕족인 약광왕(若光王)을 따라 일본의 무사시(武蔵)<sup>9)</sup>에 정착(716)한 지(金達壽 72) 6

8) 高宗황제의 왕자 李垸은 1900년 8월에 ‘英親王’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후 1907년에 皇太子가 되었으나 한일합방으로 王世子로 격하된다. 그리고 1926년 純宗이 승하하자 李王이 되었다. 그런데 英親王을 제외한 다른 호칭은 일본 황실과의 종속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해방 이후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백여 년이 지난 1330-60년 무렵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고구려 후예를 이끌고 있는 젊은 주인공 고마 유키다카(高麗行高)가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sup>10)</sup>의 멸망이라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는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sup>11)</sup>에 대항하여 벌이는 세 차례의 전투를 중심으로 그려낸다.

이 작품은 유키다카가 적장으로부터 게반징(外蕃人)<sup>12)</sup>이라는 민족차별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전의를 상실한 채 깊은 고뇌에 빠지거나, 자신의 혈통에는 이미 아마토(大和)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더 이상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라며 자학하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치중한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고구려의 후손이며 그 명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이러한 전개는 귀화한 일본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던 자신의 고통을 고구려 후예들의 삶에 투영시켜 표출하려한 작가적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김학동, 「野口赫宙(張赫宙)의 『무사시 진영(武蔵陣屋)』과 「신라왕관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 론」 241).

그런데 노구치 가쿠추의 나이 72세 되는 해인 1977년에는 고대 한일 관계사를 조명한 『韓과 倭』를 출간하여 한반도의 백제 및 가야와 일본의 아마토 정권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작품은 「일본인은 무엇인가(日本人は何だろう)」, 「신화 속의 진실(神話の中の眞実)」, 「남한의 피를 잇는 천황(南鮮の血を継ぐ天皇)」, 「왜국에서 일본으로(倭国から日本へ)」와 같이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대의 백제·가야·

9) 현재의 도쿄도(東京都)와 사이타마현(埼玉県) 지역.

10) 1183(5)-1333, 가마쿠라(鎌倉)에 성립된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

11) 1305-1358,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초대 쇼군(將軍).

12) 『武蔵陣屋』의 주인공 유키다카(行高)는 이 ‘게반징(外蕃人)’이라는 말을 들은 심정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의 피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허무하고 슬프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고독이었다. 그것은 업신여긴다거나 멸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분이었다”(필자의 번역)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 지닌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야마토 정권이 하나의 영토로 존재했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고구려 및 신라와는 이질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집필 된 저서라 할 수 있다(김학동, 「張赫宙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노구치 가쿠추는 이 저서를 통해 “어찌되었든, 상고(上古) 일본의 주권자와 한반도 남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밀접했던 것이다. (중략) 한반도 남부와 열도는 마치 한 집안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믿고 싶다”(135)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가 가능하면 하나의 민족과 같은 공동체로서 존재했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韓과 倭』의 집필에 임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작가의 노력은 임진왜란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과 새로운 평가를 담아낸 『도자기와 검』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하겠는데, 이 작품의 고찰을 통해서 말년의 작가적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일 민족의 경계 허물기’가 지닌 허와 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민족회복을 위한 전쟁으로서의 임진왜란을 형상화한

#### 『도자기와 검』

노구치 가쿠추가 말년에 집필한 『도자기와 검』은 일제 강점 말기에 장혁주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장편 『悲壯의 戰野』, 『화전 어느 쪽도 불사하다』, 『浮沈』의 내용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함축 정리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일제 말기의 세 작품과 『도자기와 검』의 집필의 동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제 말기의 작품은 국책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왜군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의 인간미를 강조하는데 치중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한 조선의 무능을 비판한다. 즉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여 강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필연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자기와 검』은 제3자의 입장에서 침략국 일본과 피해국 조선을 넘나들며 각각의 상황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집필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韓과 倭』의 후편으로서의 『도자기와 검』

노구치 가쿠추는 『도자기와 검』을 집필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저작의 ‘후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도자기와 검』이 상고(上古)의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관계를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입장에서 출간한 『韓과 倭』의 ‘제2부’라는 것을 언급한 뒤, 한일 “양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도자기(陶器)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발생과 전개를 펼쳐보였다고 말한다.

상고(上古) 시대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말하자면 양 진영은 일체(一體)가 되어있었는데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해협에 의해 분리되고, 거의 1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이라는 돌발 사건의 발생에 의해 양 진영은 재차 근친 간의 ‘피의 울부짖음(血の叫び)’을 토하게 되었다. 그것이 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피와 마음의 연결을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역사적 운명을 느낀다.(229)<sup>13)</sup>

---

13) 본고의 제3장에서는 野口赫宙의 『陶と劍』(도쿄: 講談社, 1980)을 텍스트로 삼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텍스트의 쪽수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

『韓과 倭』는 중국의 동안(東岸)에 거주하던 고대의 왜(倭)가 한반도 서남부와 일본 규슈(九州) 북부지역에 정착하면서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국가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동쪽으로서의 한일 간의 민족적 뿌리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학동, 「張赫宙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백제와 가야, 야마토 정권이 성립된 뒤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임진왜란에 의해 민족적인 관계의 복원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도자기와 검』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말처럼 아무리 민족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침략으로 인한 살육의 만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도자기와 검』에서는 이러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원흉으로서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한민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인간으로서 묘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대한 타자적인 기술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며 정의이고, 무엇이 악이고 불의인지 의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을 펼쳐 보이려 하는데,  
4백년이라는 긴 세월이 베일이 되어, 당시의 전쟁에 얽혀 전장(戰場)  
과 그 배후의 세계에서 숨 쉬고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림 이야기  
책의 하나로서 그려낼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있다.(6)

만일 당시의 전쟁이 작금에 이르러 발생한 일이었다면 그 참혹함에 감히 '임진왜란'과 같은 소재를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참혹한 전쟁으로서의 임진왜란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작가 자신의 목적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변질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도자기와 검』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그려내기 보다는 ‘민족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조명하는데 주력한다.

## 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도자기에 대한 애착과 ‘한(韓)’에 대한 동경

『도자기와 검』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할 수 있으며, “나는 히데요시라는 전국무장(戰國武將)을 좋아한다”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가가 히데요시에게서 느끼는 개인적인 매력에 집필 동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히데요시가 명(明)나라를 정복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20만 대군을 상륙시키는 과정은 그 나름의 정당화된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필연성은 히데요시가 다도(茶の湯)를 좋아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히데요시가 즐겼던 다도는 결코 유희가 아니고 “살아 있는 마음의 수련으로서의 방법”(224)으로 묘사된다. 혼란한 전국의 통일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한 잔의 차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선에서 건너온 ‘이도차완(井戶茶碗)’이라는 투박하고 서민적인 도자기(陶器)를 접하면서부터 급격히 조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조선의 도자기는 일종의 서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집기였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 고급스런 것을 만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도자기였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조선인의 민족적인 본능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이 와비(侘び)<sup>14)</sup>에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즉 히데요시의 마음이자 야마토(大和)<sup>15)</sup>였으며, 그리고 그 옛날 신대(神代)<sup>16)</sup>

14) 다도와 하이카이(俳諧)의 미적 이념의 한 가지. 간소함 속에서 발견되는 맑고 한적한 정취.

로부터 하나의 원천(源)에서 이어져 내려온 동족(同族)의 마음이었던 것이다.(23)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건너온 소박한 도자기를 통해 당시 일본의 심오한 미적 경지라 할 수 있는 ‘와비’를 느낌으로써 조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족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히데요시는 조선의 도자기를 통해서 “조선은 일본(大和)의 일부”(24)라는 생각을 굳히고 왜군을 조선에 상륙(침략)시킨다. 『壬辰錄』에는 히데요시가 조선에 상륙한 왜군의 만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필요한 살생과 난폭한 행동, 방화, 무리한 인력착취 등’을 금하는 엄격한 규율을 발령했다는 기록이 있다(71). 또한 조선의 왕 선조(宣祖)가 왕도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국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왜 피난을 가야했는지 알아보도록 하라”(90)는 전갈을 보냈다. 그리고 접수한 왕도와 각 지역의 조선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조선을 내국(內國)으로 생각”(91)하는 히데요시의 심중에 의한 것으로 작품은 전개된다.

이와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도자기에 대한 애착과 조선인에 대한 동족의식은 “이도차완(井戶茶碗)’에서 와비를 느끼고 혼을 빼앗기면서 그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태고로부터의 ‘韓(고향)’<sup>17)</sup>에 대한 동경이

15) 『韓과 倭』에서 백제 및 가야와 함께 하나의 국가처럼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고대국가.

16) (일본 신화에서) 신(神)이 다스렸다고 하는 시대, 진무천황(神武天皇) 이전(기원전 600년)까지의 시대.

17) 노구치 가쿠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동경하는 것은 작금의 조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야마토 정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당대의 정권을 지칭하는 말로 ‘韓’을 사용하고 있다.

(중략) 갑자기 눈을 떴기 때문”이라는 작가의 부가적인 서술의 형태로 뒷받침되기도 하는데, ‘韓’에 ‘고향(ふるさと)’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 3) 려왜(麗倭)와 강왜(降倭)의 존재 의미

『도자기와 검』에서 려왜(麗倭)는 왜인의 혈통으로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양민인 농민으로 살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학대와 멸시의 대상인 천민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麗倭는 왜군이 상륙하자 이들을 반겨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지리적인 안내 등을 자처하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날 일본군이 내습했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오를 듯 기뻐한 것은 이들 麗倭였다. 그 숫자는 부산 시민의 8할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麗倭가 일본군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맨 먼저 상륙한 부대는 상륙하는 순간의 불안감을 일시에 날려버리고 4백년에 걸쳐 단련해온 전국무사(戰國武士)의 본모습을 발휘하여 눈 깜짝 할 사이에 부산성을 함락시켰던 것이다.(58)

당시 부산 시민의 8할이 일본군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작가의 추측성 언급은 그만큼 조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컸다는 점을 부각시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한편,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麗倭의 존재를 통해 한일 간의 민족적 교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麗倭와는 상반된 입장에서 조선에 투항하는 왜군이 속출하는 정황을 그려내기도 하는데, 작품에서는 이들을 ‘강왜(降倭)’로 부른다. 이들 降倭는 왜군이 비록 진주성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는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기아(飢餓)와 황폐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향수병에 걸려 조선의 여인을 찾아 방황하게 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조선 측에서는 이들 도망병을 降倭(항복한 왜병)라 부르고,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여 ‘降倭隊’라 하였다. 이 降倭부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조선 측은 이 降倭부대를 후하게 대우하여 관직을 내리기도 하고, 물자공급에 있어서도 특별대우를 했기 때문이다.(172)

이러한 降倭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춘천 부근에서 수하 수백 명을 이끌고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을 이탈한 사야카(沙也可-金忠善)라 할 수 있다. 사야카는 모하당(慕夏堂)이라는 호를 받았으며 종3품의 품계에 봉해졌다. 그는 왜군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선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나중에 고니시 유키나가와 마주앉아 조선의 대표로서 강화 협상에 임하기도 하였다(中村榮孝 436).

작품은 이들 降倭가 조선군에 쉽게 항복한 이유로서 단지 “번(藩)<sup>18)</sup>을 벗어나 나라를 바꾼다는 식의 가벼운 마음”(190)에서 일으킨 행동이었다는 해설을 덧붙인다. 이 말은 일본 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속한 ‘藩’을 이탈하여 다른 ‘藩’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왜병들이 일본에 있는 하나의 ‘藩’처럼 조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쪽으로서의 의식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상과 같은 降倭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의해 피난길이 막힌 왜군이 많은 병사들을 남겨놓고 떠나갔다면서 “이 전쟁으로부터 3백 8십년이 지난 후에 서생포(西生浦)<sup>19)</sup>에서 나는 이들 잔류 왜병들의 자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나의 어머니도 그 중의

18) 일본의 에도(江戸)시대(1603-1868)의 영주인 다이묘(大名)가 다스리던 영지.  
19) 울산 부근의 포구로, 작가의 생모의 고향.

한사람이었던 것이다”(192)라고 언급하여, 작가 자신의 생모 역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왜병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노구치 가쿠추의 언급은 그 내용의 실제 여부를 떠나 『도자기와 검』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의 몸으로 이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4) 동족(同族)의 역사로서의 임진왜란

『도자기와 검』은 왜군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행적과 왜군 함대를 섬멸한 이순신의 활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한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또 다른 선봉장으로서 호전적인 인물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와는 다르게 협상을 통해 전쟁을 피하려 했으며,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인간적인 면을 높게 평가한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향한 작가의 애정은 역사가들이 그를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주전파(主戰派)인 기요마사(淸正)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에, 유키나가(行長)는 참으로 인기가 없다. 나는 유키나가에게서 인텔리로서의 선한 면과 약한 면을 동시에 본다. 기요마사를 거친 무사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그 나름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고뇌하는 유키나가 쪽에도 깊은 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점과 함께 겪어야 했던 괴로운 입장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02)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를 소재로 한 소설과 드라마 및 영화는 상당한 양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宿敵(上,下)』(角川書店, 1985)은 임진왜란 당시에 보다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 경쟁했던 두 인물의 특징과 행적을 그려낸 작품으로 유명하다. 여기

에서 엔도는 기요마사를 히데요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반면에, 유키나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앞세워 히데요시와 조선왕을 속인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그려낸다.

노구치 가쿠추가 유키나가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명나라와의 교역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려는 히데요시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요마사의 무사다운 면모를 이상적인 것으로 그려냈던 일제 강점 말기의 임진왜란 3부작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다.

이순신의 활약에 대해서도 「남해의 대해전(南海の大海戰)」이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매우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거북선의 특징과 제작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거북선은 바다의 장갑차”라거나 “세계 최초의 잠수함”(118)이라며 그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이 치른 주요 해전을 묘사하는 가운데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왜선을 격멸시킨 한산대첩을 특히 강조한다.

이 해전에서 사용한 학익진법은 순신이 발명한 거북선과 마찬가지로 그의 창조적인 생각과 연구에 바탕을 둔 신진법이다. 1805년 트라팔가르 대해전에서 프랑스·스페인의 대연합 함대를 격파하여 대승을 거둔 영국의 제독 넬슨은 남몰래 이순신을 연구하여 이 학익진을 그 대해전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또 1906년 러시아 발틱함대의 내습을 쓰시마 앞바다에서 막아선 뒤 이를 궤멸시킨 일본해군의 도고(東郷) 원수가 취했던 T자 전법도 이 학익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131)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의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에 대해 호의적으로 그려내면서 적국의 장수인 이순신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작가의 집필 의도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하겠는데, 작금의 한일 간의 민족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각 진영의 인물들이 처한 입장과 그들의 행적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현재의 한국인이 고대의 고구려·백제·신라가 벌였던 치열한 전투를 특별히 어느 편을 들지 않고 과거의 역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5) 조선 도공의 일본 도래(渡來)와 자발성의 문제

『도자기와 검』의 마지막 장은 ‘도공대도래(陶工大渡來)’라는 제목으로 사쓰마(薩摩), 아리타(有田), 가라쓰(唐津), 하기(萩), 라쿠(樂)와 같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산지가 모두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 도공들에 의해 창건되거나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임진왜란에 의해 조선의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池亨 87). 그러나 노구치 가쿠추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동서(東西)의 역사가는 한결같이 ‘포로설’을 주장하면서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중략) 각 영주(大名)들은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편승하여 전장(戰場)이나 그 주변의 도자기를 찾아다니며 도공을 생포한 뒤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또는 이와 관련된 문서의 집필자로서 ‘포로설’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206)

가쿠추는 이와 같은 역사가들의 ‘포로설’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군들은 철군을 위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휘하

병력의 상당수를 남겨놓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이 가로막고 있는 해상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공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207). 그리고 많은 도공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이는 강제로 끌려왔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에 정착한 조선의 도공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인지, 자의로 건너간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현재까지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계룡산 입구에 있는 ‘박정자공원’에는 공주 출신으로 일본의 아리타(有田) 도자기의 원조로 추앙받고 있는 이삼평(李參平)을 기리는 추모비가 1990년에 건립되었다. 이 비는 일본의 아리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자기 산업 관계자들의 후원금으로 건립된 것인데, 비문에 이삼평이 ‘끌려갔다’고 하지 않고 ‘건너갔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2006년에는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붙잡혀 갔다’로 표기한 비석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YTN 뉴스, 2007.1.8.).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임진왜란을 미화하기 위한 일본 우익의 교묘한 술책으로 이삼평이 ‘반민족적인 매국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추모비 건립에 많은 자금<sup>20)</sup>을 지원한 아리타 지역 관계자들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주장이다.<sup>21)</sup> 자금을 지원한 이들은 일본의 도자기 업계를 주도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이삼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추모비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삼평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온 도공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들 후손들

20) 日貨 약 1억 8천만엔, 韓貨 약 2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 추모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도자기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사용된 총 금액으로 판단됨.

21) 실제로 필자는 1998년 무렵 이 비석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직면한 충남도청의 의뢰를 받아 이삼평에 관련된 일본의 여러 자료를 번역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의 입장은 일본사회에서 이질적인 이방인 집단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애써 이룩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입지도 약화되어 버린다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노구치 가쿠추가 조선의 도공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건너갔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삼평의 후손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완전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는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조선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노구치 가쿠추나 이삼평의 후손들이 느끼는 민족의식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금의 민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일 간의 대립과 갈등은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일본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밀접하게 소통했던 고대의 한일 교류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일 민족의 형성과 교류를 기존의 민족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논하려는 노구치 가쿠추의 『韓과 倭』, 『도자기와 검』 같은 작품이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자기와 검』에서 펼치고 있는 노구치 가쿠추의 독자적인 언설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비판보다는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일본인들의 한일 양국을 바라보는 입장의 단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4. 노구치 가쿠추의 민족의 경계 허물기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노구치 가쿠추는 일본으로 귀화한 뒤 1997년 사망할 때까지 고구려 후예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고마군(高麗郡)<sup>22</sup>에 거주하며, 『무사시 진영

---

22) 현재의 사이타마(埼玉)현 히다카시(日高市)

《武蔵陣屋》을 비롯한 많은 작품에서 한반도 도래인을 소재로 삼거나 고마군 일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다. 이러한 작가적 행적은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곳곳하게 미래를 개척해온 선조들의 체취를 몸으로 느끼면서 일본으로 귀화한 자신의 곤란한 입장을 옹호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민중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작품을 집필하여 귀화한 일본인 작가로서의 주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자신의 혈통적인 뿌리를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데 작가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고대 한일 민족의 교류와 임진왜란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담아낸 『韓과倭』와 『도자기와 검』을 출간하여 양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노구치가쿠추의 이러한 시도는 일제 감정 말기의 친일행적과 일본으로 귀화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귀화한 조선(한국)인 작가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작금의 한일 간의 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심중의 회한을 토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의 대립적인 민족 이데올로기 아래에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혈통적 교류와 귀화한 많은 재일조선(한국)인들의 존재를 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구치 가쿠추가 한일 민족의 역사적인 교류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혈통주의적인 민족의 구분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이러한 집필 태도는 작금의 소수민족의 존재와 다민족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추세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나 혈통적 소수자의 탄압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구치 가쿠추의 저작을 통해

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혈통적 계통을 기준으로 한 한일 양 민족의 구분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류를 엮어매고 있는 '민족'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족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입니다. 둘이면서도 사실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영혼, 즉 정신적인 원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에르네스트 르낭 80)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의 저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2002). 그리고 한일 민족의 깊은 유대관계를 주장하는 가쿠추의 언설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필자 역시 “민족이란 구성원의 개성과 자존의식이 통합적으로 발현되는 집단적 인격체”(김학동, 『張赫宙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밑바탕에는 먼 과거의 특정한 혈통적 관계가 현재의 민족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한국과 일본 같이 오랜 시간 언어와 문화를 달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진 경우에는 현실적인 감각에서 민족이라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일상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혈통적인 구별을 우선시하여 소수자를 억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다수자에 속한 일원이 자신의 언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을 남용함으로써 생긴 오해일 뿐,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민족의 개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는 소수자 또는 약자로서의 집단이나 국가가 다수자 또는 강자로서의 집단이나 국가의 억압에 저항할 필요가 있을 때 민족이라는 개념 아래 쉽게 단결해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투쟁을 거듭해온 한민족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민족의 역사는 동일 혈통으로서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혈통으로 구성된 '집단적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민족의 개념 아래 존속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구치 가쿠추의 일련의 저작을 통한 한일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은 한민족이 같은 혈통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의식의 본질을 꿰뚫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민족주의의 뿌리는 임진왜란과 같은 무력에 의한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일 간의 문화와 혈통적인 교류의 밀접함을 앞세워 이미 독자적인 민족으로서 정착한 한민족을 무력으로 흡수통합하려 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것은 작가의 양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제 강점 말기에 장혁주(張赫宙)라는 필명으로 친일적인 집필활동을 하던 작가가 1952년 10월 일본으로 귀화한 이후에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라는 필명으로 집필한 작품 중에서 『도자기와 검(陶と劍)』(1980)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임진왜란을 민족의 회복과 도자기(陶器)라는 문물교류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인식을 담아낸 『도자기와 검』은 『한과 왜(韓と倭)』(1977)와 함께 한일 양 민족의 친밀한 교류를 주제로 삼은 작가 말년의 회심작이라 할 수 있다.

『도자기와 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의 도자기를 접한 뒤 조선인이 일본(大和)인과 정서를 같이 하는 동족임을 확신하고 민족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출병한 것이 임진왜란이라는 주장을 펼친

다. 또한 왜군의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및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함께 이순신을 동일선상에서 호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임진왜란을 동족 간에 일어난 과거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조선의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건너갔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가적 입장은 『한과 왜』에서 고대의 백제 및 가야가 일본의 야마토(大和) 정권과 하나의 국가처럼 친밀하게 교류한 사실을 부각시켜 한일 양 민족의 동질의식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임진왜란이 단순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민족을 회복하려는 히데요시의 순수한 열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그려냄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작금의 한일 간의 민족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허물어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자기와 검』을 통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구치 가쿠추의 노력이 향후 한일관계의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무자비한 살육을 동반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민족의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각종의 전쟁을 미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가쿠추의 이러한 저작 역시 과거의 친일행적에 대한 변명 내지는 일본으로 귀화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김학동. 「책머리에」. 『張赫宙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서울: 국학자료원, 2008.
- \_\_\_\_\_. 「張赫宙 문학과 壬辰倭亂」. 『日本語文学』 36(2008.3).
- \_\_\_\_\_. 「張赫宙의 『비원의 꽃(秘苑の花)』」. 『英親王의 半生에 투영된 작가』

- 적 자화상-]. 『인문학연구』 73(2008.4).
- \_\_\_\_\_. 「張赫宙의 문화와 민족의 굴레-한·일 고대민족의 교류를 형상화한 『韓과 倭(韓と倭)』를 중심으로-」. 『日本学研究』 27(2009.5).
- \_\_\_\_\_. 「野口赫宙(張赫宙)의 『무사시 진영(武蔵陣屋)』과 「신라왕관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론」. 『日本文化学報』 43(2009.11).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옮김. 서울: 나남, 2002.
-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형선 옮김. 서울: 책세상, 2005.
- 홍윤기.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서울: 효형출판, 2000.
- 金達寿. 「高麗若光王と高麗神社」. 『古代朝鮮と日本文化』. 도쿄: 講談社學術文庫, 1986.
- 中村栄孝. 「朝鮮役の投降倭将金忠善」. 『日鮮関係史の研究,中』. 도쿄: 吉川弘文館, 1969.
- 池亨.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天下統一と朝鮮侵略』. 도쿄: 吉川弘文館, 2003.
- 野口赫宙. 『陶と劍』. 도쿄: 講談社, 1980.
- \_\_\_\_\_. 『韓と倭』. 도쿄: 講談社, 1977.

A Study on *A Sword and Pottery*  
written by Noguchi Gakuchu  
- Demolition of a racial boundary  
through a positive valuation about Imjinwaeran

Kim, Hak-Dong

(Chungnam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Ch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relays the study of *A Sword and Pottery* (1988) of works written by Noguchi Gakuchu who naturalized to Japan in October, 1952, and whose past name was Jang, Hyeokju.

The books *A Sword and Pottery* and *Han and Wae* are works after the author's heart in the final part of the writer's life. They portray the introduction of pottery and racial interchange between Japan and Korea. The writer claims that Doyotomi Hideyosi believed the Japanese and Chosunin(Korean) were the same tribe because of similarities in their respective potteries and started Imjinwaeran to confirm his notion. Additionally, these books take the viewpoint that the Chosun's potters voluntarily went to Japan, rather than being forced there.

Gokuchu's viewpoint contests the typical perspective of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portraying Hideyosi's intents as a passion to reunite the tribes rather than

an attempt to invade Chosunin. He furthers his viewpoint in *Han and Wae* by portraying intimate interchange between the Yamato regime in Japan and the Baekjae and Gaya dynasties in Korea.

Noguchi Gakuchu's endeavor may possibly influence the correlation of the two nations in the future and highlight the ill effects of the blind racialism in the past.

However, this essay can still be construed as a justification in self-defense due to the writer's naturalization to Japan and his past pro-Japanese leanings. Imjinwaeran was, in essence, an invasion and cruel slaughter.

주제어: 노구치 가쿠추(Noguchi Gakuchu), 장혁주(Jang, Hyeok-Ju), 도자기와 검(A Sword and Pottery), 한과 왜(Han and Wae), 임진왜란(Imjinwaeran), 민족의 경계 허물기(Demolition of a racial boundary)

논문제출일: 2009. 12. 30

심사완료일: 2010. 01. 15

게재확정일: 2010. 01. 23